

중소기업 포커스

창업공간의 재해석:

공동일터(Coworking)에서 공동삶터(Coliving)로
- 스타시용 에프 사례와 시사점

책임작성 | 박재성 연구위원(02-707-9830, jspark@kosbi.re.kr)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b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서론
2. 스타시옹 에프 개요
3. 스타시옹 에프 운영방식
4. 커뮤니티형 창업공간의 이점
5. 정책 시사점

| 요약

- 프랑스의 새로운 창업공간 Station F는 규모와 다양성 및 포용성, 지역 재생의 이점을 누리며, 국내 커뮤니티형 창업공간의 구성에 대한 비전(vision)을 제시
 - 2017년 프랑스 파리의 옛 철도부지에 조성된 창업공간 Station F는 단순히 협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함께 문화를 형성하는 공동삶터(Coliving Space)로서의 역할을 추구함
- (설립 배경 및 규모)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부상
 - 마크롱 대통령의 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아래 프랑스 기업가 자비에르 니엘은 “모든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 지붕 아래”라는 개념의 창업공간 Station F를 설립
 - Station F는 파리 13구에 3만4천㎡(1만3백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일터뿐만 아니라 거주 공간, 스포츠 센터와 카페, 바 등의 공동 생활 공간 보유
- (배치의 특이점) Station F는 기능에 따라 공유 구역(Share Zone), 창조 구역(Create Zone), 휴식 구역(Chill Zone)의 세 구역으로 구분
 - 혁신을 공간의 가장 핵심 기능으로 간주하여 창조 구역을 중심에 배치하고,

각각 좌우에 사무 공간인 공유 구역과 개방 공간인 휴식 구역을 배치

- (창업공간의 포괄성) Station F의 구성은 창업기업 뿐만 아니라 VC 및 엔젤, 대기업, 정부 부처 등 창업기업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기관을 포함
 - 공유 구역에서는 BPI France(은행), INPI(특허), Pole Emploi(고용) 등 6개 기관의 담당자가 상주하며 프랑스 내 30가지 공공서비스에 대해 상시상담 지원
- (대표적인 프로그램) 파운더스 프로그램(Founders Program)과 파이터스 프로그램(Fighters Program)은 두 프로그램 모두 '종합적(all-inclusive) 지원'과 '커뮤니티 내 공유와 공동의 해결'이라는 가치 아래 기획됨
 - 파운더스 프로그램은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창업자들을 위한 파이터스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
- Station F는 대규모로 창업자를 밀집시키고, 창업자의 주거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밀집성의 효과를 극대화함
 - 밀집성은 협력과 경쟁의 기반이며, 이는 혁신과 성장의 원천이 됨(Porter, 2000)
 - 밀집형, 즉 지역 커뮤니티 조성형 창업 공간이 해당 지역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장기적인 고용 성장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실증 분석 다수
- (새로운 창업 공간의 이점) Station F는 복합적 지역 재생 효과, 규모의 효과, 다양성과 포용성이 주는 편익을 모두 누리고 있음
 - Station F는 창업공간과 도시 재생의 결합 사례로서 물리적 재정비를 넘어 사회 문화적 관점의 복합적 재생을 지향하는 도시 재생의 최근 조류를 반영
 - 연령, 성별, 학력, 출신국가를 구분하지 않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추구함으로써 혁신의 원동력인 창의적 문화의 확산을 유도
- (국내의 수용 가능성) 규모와 다양성, 포용성을 추구하면서 복합적 지역 재생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창업공간의 모색
 - 낙후 지역 도시 재생 및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예: 철도정비창 부지)을 신개념의 커뮤니티형 창업공간으로 조성한다면, Station F의 혁신 사례와 유사

1. 서론1)

- 프랑스의 창업공간 Station F는 공동일터(Coworking Space)를 넘어 창업자가 지역의 기반을 이루며 문화를 형성하는 공동삶터(Coliving Space)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함
 - 프랑스 파리에서 2017년 옛 철도부지에 새로운 창업 공간이 조성됨
 - 창업자들의 밀집과 이들 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창업 촉진의 효율을 제고하면서 기업가 정신과 창업 문화를 인근에 확산시키는 창업공간 신조류의 대표적 사례
- “공생(Coliving)-커뮤니티(Community)-문화(Culture)”의 3C 형태의 진화라는 신조류 형성
 - 창업자 커뮤니티 형성이 인근 지역으로 창업경험과 문화를 전파시키면서, 지역의 풍경을 혁신하고 새로운 산업의 출발점이 되도록 함
 - 기존의 창업공간이 단지 창업자 간 협업 공간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면, Station F는 대규모로 창업자를 밀집시키고, 창업자의 주거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창업자 간 교류 효과를 극대화하고, 창업자를 몰입시킴으로써 그 문화를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형태
- 위워크 , 패스트파이브, 시티큐브, 스파크플러스, 르호봇 등 민간 코워킹 스페이스의 부상에 따라 공공 창업공간의 필요성과 역할이 모호해지는 시점에서, 커뮤니티형 창업공간은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

2. 스타시옹 에프 개요

가. 설립 배경

-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의 소극적 고용으로 청년 고용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부상

1) 본 보고서의 작성에 도움을 준 나수미·윤수현 두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프랑스 대기업의 소극적 청년 고용이 계기
 - * 프랑스의 청년 실업률은 2008년 18.3%에서 2009년 22.98%로 급등
 - *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보다는 스타트업 창업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 대두
-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친기업, 친기술’을 표방하며 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 프랑스 창업 생태계에 투자해 온 자비에르 니엘(Xavier Niel)²⁾은 2017년 6월 29일 “전체 스타트업 생태계를 ‘한 지붕’ 아래에” 두는 사업으로서 수도 파리에 Station F를 설립
 -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파트너들, 즉, 공공 서비스, VC, 학교 및 기업 인큐베이터 등이 창업자와 상호 작용하는 멜팅팟(melting pot) 조성을 통해 커뮤니티형 창업 공간을 제시
 - Station F가 지향하는 커뮤니티는 다양한 종류의 혁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다양성(diversity)과 포용성(inclusion)을 핵심 가치로 추구

나. 규모

- Station F는 파리 13구 세느(la Seine)강 근처에 3만4천㎡ 규모로 조성되어 여의도 공원의 15배에 이르며, 총 길이는 310m로 에펠탑을 눕혀놓은 것과 유사
 - 1,000여개의 스타트업을 수용하는 3,000개의 업무 공간, 4개의 식당, 2개의 카페, 8개의 이벤트 공간을 구비³⁾

2) 자비에르 니엘은 프랑스 통신사 프리(Free) 창업자이자 CEO로서 프랑스와 캘리포니아에 무료 코딩 학교 ‘에콜 42’를 만들고, 초창기 스타트업 VC인 키마 벤처를 설립하는 등 오랫동안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에 관심을 가져온 프랑스 기업가

3) 스타시옹 에프 홈페이지(<https://stationf.co/campus/>)

[그림 1] Station F 캠퍼스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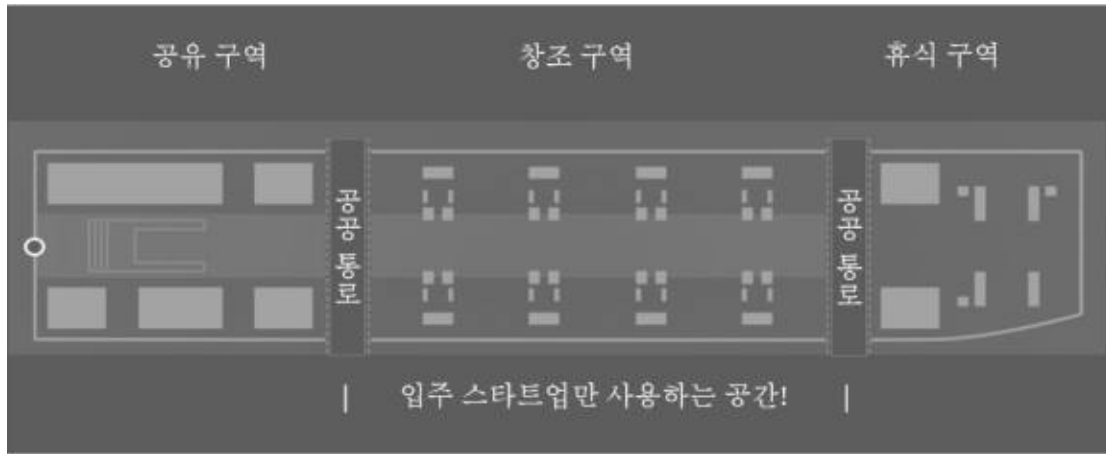
출처: Station F 홈페이지(<https://stationf.co/>)

- 공동삶터(Coliving space)의 실현을 위해 추가로 인접한 3개 건물에 100실의 공동 거주 공간, 스포츠 센터와 카페, 바 등 6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확충
 - 향후 몇 년 내로 5성급 호텔과 유스 호스텔도 추가될 예정

다. 배치

- Station F의 공간은 기능에 따라 공유 구역(Share Zone), 창조 구역(Create Zone), 휴식 구역(Chill Zone) 등 세 개의 구역으로 구분
 - 기술개발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창조 구역을 중심으로 각각 좌우에 사무공간인 공동 구역과 개방 공간인 휴식 구역을 배치

[그림 2] 스타시용 에프의 배치도



출처: Station F 홈페이지(<https://stationf.co/campus/>)

- (공유 구역) 스타트업이 업무와 관련한 지원을 확보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 간 교류를 촉진하도록 하는 반공공(semi-public) 공간
 - * 강당,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공간
 - * 벤처투자사들(VC)과 30개의 정부기관이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 프렌치 테크 센터들이 2층에 위치
 - * 스타트업들의 작업에 필요한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작업 공간 등이 있는 테크 랩 위치
 - * 안티카페와 우체국 등의 공동 업무 공간

[그림 3] 공유 구역



(좌) 공유 구역의 배치도, (우) 공유 구역 전경

출처: (좌) 네이버 캐스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8925&cid=59088&categoryId=59096>),

(우) Station F 홈페이지(<https://stationf.co/campus/>)

- (창조 구역) 스타트업의 사업 개발을 위해 3층에 마련된 집중적인 업무 공간으로, Station F의 중추 공간
 - * 3천개의 작업 공간 구비
 - * 페이스북, 네이버, 유비소프트, 쉐데스크 등 우수 기업들이 제공하는 개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의 현장

[그림 4] 창조 구역



출처: Station F 홈페이지(<https://stationf.co/campus/>)

- (휴식 구역) 휴식과 식사를 위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휴게 공간
 - * 창업자와 일반인들 간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도 휴일 관계없이 24시간 내내 이용 가능
 - * 프랑스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레스토랑 빅마마 입주

[그림 5] 휴식 구역



출처: Station F 홈페이지(<https://stationf.co/campus/>)

라. 창업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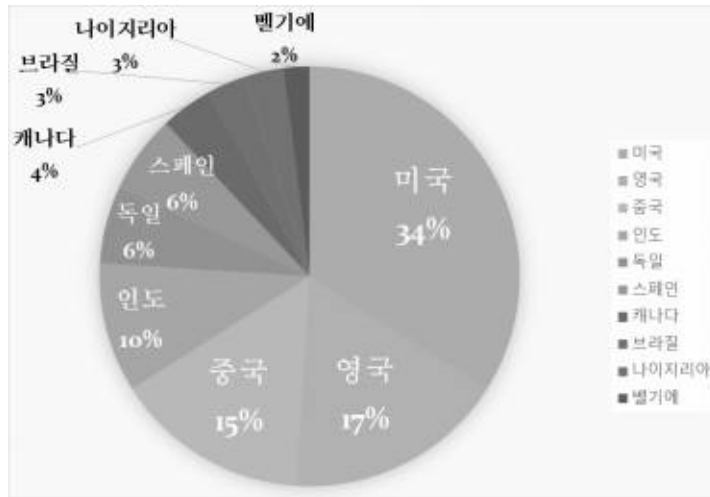
■ Station F의 창업자들은 연령, 성별, 학력 등의 제한이 없으며, 가정을 가진 경우도 많음

- 첫 해 Station F에 입주 신청한 11,271개 스타트업 중 67%(7,552개)가 프랑스 내 지원자이며, 나머지 33%(3,719개)는 해외에서 지원

* 해외에서 지원한 스타트업의 경우, 미국 (34%), 영국 (17%), 중국 (15%), 인도 (10%), 독일 (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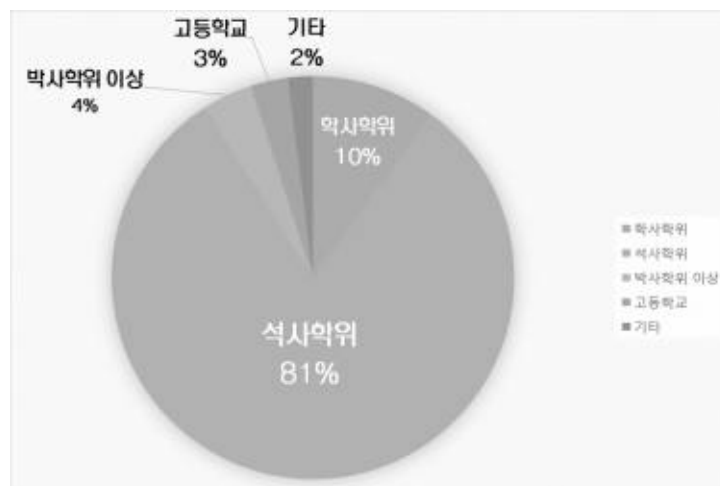
- 창업자 연령은 평균 30.9세이고, 최저 14세에서 최고 65세임
- 스타트업 중 40%는 여성이 창업하였으며, 창업자의 26.4%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창업자의 85%가 석사 학위 혹은 그 이상 학력을 소지

[그림 6] 해외에서 지원한 학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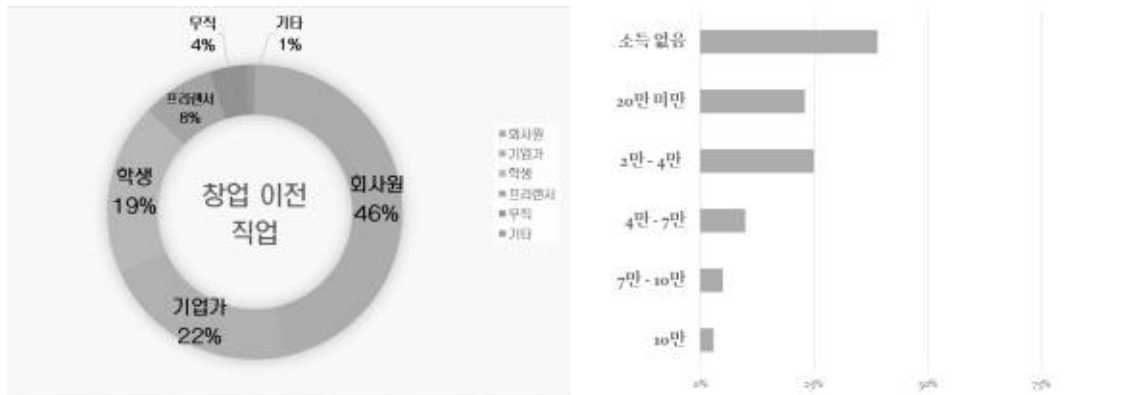
출처: Not what you'd expect: Data from 1 year at STATION F and 1,000 startups
<https://www.slideshare.net/STATIONF/not-what-you-d-expect-data-from-1-year-at-station-f-and-1000startups>

[그림 7] 창업자의 학력 분포



- 창업자 상당수는 창업 이전에 회사원으로 종사하였으며, 창업자가 수령하는 실업급여가 창업 자금의 기반
 - 프랑스의 경우 개인이 퇴사하면 정부가 기존 임금의 최대 70%까지 2년간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어, 창업자는 실업급여를 창업기의 생활자금으로 활용
 - * Station F에 입주한 창업자들의 47%가 창업 이전에 회사원이었다고 응답하였고, 39%는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

[그림 8] 창업자의 이력과 소득



주: (좌) 창업자의 스타트업 창업 이전 직업, (우) 창업자의 연소득 (단위: 유로)
 출처: Not what you'd expect: Data from 1 year at STATION F and 1,000 startups
 (<https://www.slideshare.net/STATIONF/not-what-you-d-expect-data-from-1-year-at-station-f-and-1000startups>)

- 입주 기업 중에서는 디지털 기술 관련 스타트업 비중이 가장 크나,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성을 기준으로 창업 기업을 유치
 - 스포츠테크, 패션테크, 뷰티테크, 럭셔리 테크, 클린테크 및 그린 테크 등 이색적인 업종의 스타트업 입주

마. 참여기관

- VC 및 엔젤, 대기업, 정부 부처는 창업기업과 상호작용하는 창업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참여

- 다프니(Daphni), 키마 벤처스(Kima Ventures), 벤테크(Ventech) 등 40여개의 글로벌 VC, 투자자가 쉐어 구역에 입주하여, 선발 스타트업을 관찰하고 투자 유치 상담 지원
- 창조 구역에서는 대기업이 Station F로부터 공간을 임대하여, 독립적인 방식으로 자체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
 - 대기업은 전략적 투자자로서 기존 사업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
- 공유 구역에서는 BPI France(은행), INPI(특허), Pole Emploi(고용) 등 6개 기관의 담당자가 상주하며 프랑스 내 30개 공공서비스에 대해 상시상담 지원
 -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제시함으로써 프랑스 내에서 회사 창업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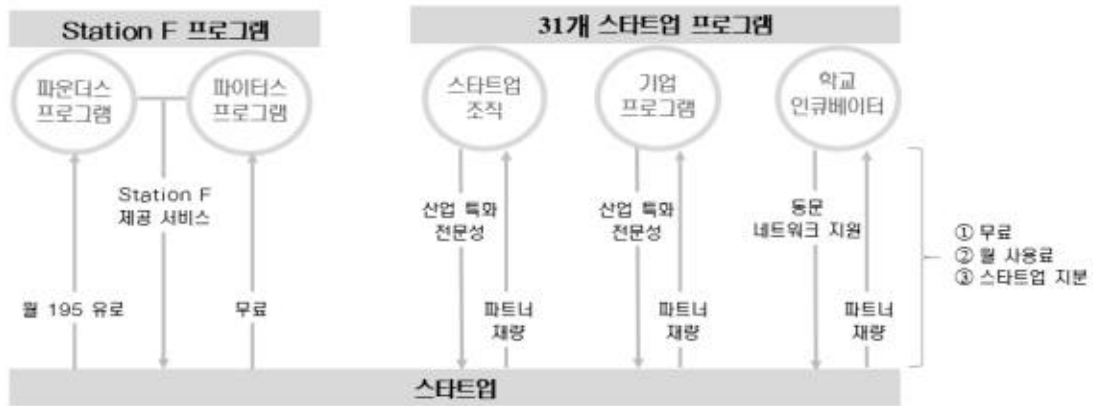
3. 스타시옹 에프 운영방식

- Station F는 ‘종합적(all-inclusive) 지원’과 ‘커뮤니티 내 공유와 해결’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내부 프로그램 기획
 - ‘모든 유형의 창업자들에게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창업자의 문제 90%가 다른 창업자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프로그램 기획
- Station F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파운더스 프로그램(Founders Program)과 파이터스 프로그램(Fighters Program)으로서, 두 프로그램 모두 문제의 ‘공유’와 ‘공동의 해결 방안 도출’에 역점
 - 선발된 스타트업에게 멘토나 코치를 지정해주지 않고, 스타트업들이 같은 입장에서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제공
 - 파운더스 프로그램은 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
 - * 선발된 창업자는 월 195 유로로 Station F 내의 공간을 빌리며,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음

- 파이터스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 * 모든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편견이나 특권을 줄 수 있는 요소들(출신, 학력 등)을 배제한 채 선발
 - * 파운더스 프로그램과 동일한 지원을 '무료'로 제공
 - * 난민, 이주민, 재소자 등을 파이터스 창업자로 선발
- 파운더스 및 파이터스 프로그램은 세계 21개국의 기업가들이 선발위원장이 되어 심사를 통해 스타트업을 선발
 - 첫 해, 총 11,271개 지원 스타트업 중 9%만 최종 선발
 - 프로그램별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지원하며, 창업기업은 프로그램 종료 후 Station F를 떠나거나 경쟁을 거쳐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
- 대표 프로그램 외에 창업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31개의 주제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기업, 그리고 학교 인큐베이터가 각각 1/3씩 프로그램 운영
 -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Shakeup Factory, Inpulse Labs와 같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는 각 산업별 특화된 전문성 제공
 - (기업) LVMH, Naver, ChainAcc, Facebook 등은 각각 명품 산업, 소비자 어플리케이션, 블록체인, 데이터 영역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진행
 - (학교) 학교 인큐베이터는 젊은 창업자들의 HEC, Insead, Edhec과 같은 출신 학교의 동문 네트워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개별 프로그램은 운영 주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스타트업을 선발하며, 비용도 프로그램 파트너가 자체적으로 결정
 - * 파트너(대기업, 학교)가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경우, 책상 개당 창업기업이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그리고 창업기업의 지분 일부를 파트너에게 주는 경우 등 세 가지가 가장 일반적
 - * Station F 내 규모가 가장 큰 HEC 인큐베이터의 경우 매달 책상 개당 200유로를 받으며, 3개월에 한번씩 25유로가 증가하는 점진적 상승 모델을 채택

- * 최단 3개월에서 최장 무제한으로 인큐베이터별로 지원 기간이 상이하나,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지원

[그림 9] Station F 스타트업 프로그램 개요



출처: 저자 작성

- 2017년 입주 스타트업 1,034여 개 중 232개가 투자를 유치⁴⁾하였으며, SAP에 인수된 Recast. AI 이후 총 8개의 스타트업이 기존 기업에 인수됨

4. 커뮤니티형 창업공간의 이점

가. 밀집성은 혁신의 출발점

- Station F는 다양한 창업기업을 한 곳에 유치하는 밀집성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창업공간에 경쟁우위를 부여하고자 한 점이 특징적
 - 다양한 창업자를 밀집시키고 창업자와 지원 기관, 지역을 긴밀히 연결함으로써 참여자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혁신을 자극하며, 해당 지역에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촉진시킨다는 전략
 - 혁신과 성장, 경쟁력의 원천은 협력(collaboration)과 경쟁(competition)에 있으며, 밀집성은 협력과 경쟁을 위한 기반 (Porter, 2000)

4) Station F 기획 설문조사에 근거한 것이며, 약 25.8%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대체적인 추정치임

- 공통성과 상호보완성 아래 연결된 기업들과 관련 기관들의 지리적 인접성이 기업과 기관의 협력과 경쟁을 이끌어 내 혁신과 성장을 견인
- 생산자, 수요자, 생산 요소 및 기반 시설의 공급자, 전문화된 교육 및 훈련, 서비스, 기술적 지원을 공급하는 기관들, 즉, 대학, 연구소, 표준 설정 기관(standards-setting agencies), 직업 훈련 기관, 협회 등이 밀집성의 구성요소

■ 국내에서도 밀집성의 장점을 살려 대규모 창업공간을 조성한 곳으로서 판교 창업존(2만3천㎡)⁵⁾, 서울창업허브(1만8천㎡)⁶⁾ 등이 있으나, 도시 재생과의 결합, 다양성과 포용성의 추구 등에서 차이

- 스타시온 에프는 대규모 창업공간의 조성을 통해 혁신성의 확산이 지역 재생을 자극하도록 유도
- 창업공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추구함으로써 기술적 혁신과 함께 문화적 혁신을 선도
 - 국가, 연령, 성별, 학력의 제한 없이 다양한 창업자를 선발하며, 파이터스 프로그램과 같은 취약계층의 우선 선발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

■ 밀집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거시설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며, 커뮤니티 내 공유와 해결이라는 운영 원리를 채택한 점도 특징적

- 창업기업에게 멘토나 코치를 지정하지 않고 창업기업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
-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터, 기업, 학교와 같은 프로그램 공급자들이 ‘한 공간에서’ 각각 창업공간을 임대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창업 훈련 과정에서도 참여자 간에 다양한 자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

5) 판교 창업존: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의 북쪽(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부지 2만3천㎡에 들어선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창업지원 클러스터로서 현재 109개 창업기업이 입주
 6) 서울창업허브: 과거 산업인력공단(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이었던 지상 10층 건물 및 별관을 리모델링한 창업 지원 클러스터로서 현재 예비창업기업 300개, 초기 창업기업 100개, 창업 후 성장기업 40개의 기업이 입주

나. 실증 사례

- Station F와 같은 밀집형, 즉 지역 커뮤니티 조성형 창업 공간이 지역의 창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고용 성장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실증 분석 다수
 - 실리콘밸리에 관한 사회적 연결망 연구는 풍부한 소기업의 밀집이 혁신적인 기업문화를 발전시키고 진입 비용을 낮추어 기업가 정신을 고양함을 제시 (Saxenian, 1996; Glaeser, Kerr and Ponzetto, 2010)
 - 미국과 독일의 실증 분석에서는 기업의 밀집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비즈니스의 추진과 창업이 활발하였고, 고용 성장도 실현 (Rocha and Sternberg, 2005; Delgado, Porter, and Stern, 2010)
 - Chatterji, Glaeser, and Kerr (2014)는 창업 위주의 초기 기업가 정신이 활발한 도시일수록 고용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제시
- 정부의 역할은 창업에 특화된 공간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 및 관련 기관의 밀집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업이 지역을 혁신하고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
 - 상업적인 민간 창업공간의 부상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

다. 새로운 창업 공간의 이점

- Station F와 같은 커뮤니티 조성형 창업공간의 이점은 “복합적 지역 재생”, “다양성과 포용성의 확산”, “규모의 효과”로 요약
1. 복합적 지역 재생 효과
 - Station F는 창업공간과 도시 재생의 결합 사례로서 도시 재생의 최근 조류를 반영
 - 스타시옹 에프가 위치한 알 프레시네(Halle Freyssinet)는 국영 철도 회사가 적재 도크로 사용했던 1929년에 건축된 노후 건축물이었음
 - * 자비에르 니엘이 2억 5천만 유로를 투자하였으나, 파리지 당국도 도시 재생 (urban regeneration) 프로젝트로서 7천만 유로를 지원

- 최근의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은 물리적 환경개선만을 고려해 온 재정비 사업에서, 산업·경제, 사회·문화적 관점의 복합적 재생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최조순 외, 2011)

* 낙후된 지역의 물리적 재정비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를 촉진하고, 역동적인 창업 문화를 형성하는 복합적 지역 재생 효과를 추구

■ 국내에서는 헤이 그라운드가 위치한 성수동 벤처단지가 이와 유사한 사례

- 성수동은 서울시의 도시 재생 시범사업에 선정되기 이전부터 민간 차원의 자생적 도시 재생 운동을 경험 (이유리, 이명훈, 2017)
- 해당 지역에 밀집한 소셜벤처를 중심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
- 기업 및 단체, 지역 상점 등 다양한 시설의 유입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과 커뮤니티 형성, 거리 활성화와 같은 복합적 지역 재생 효과 발휘

성수동 소셜벤처 벨리

- 2012년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으로 소셜벤처 250여개(종사자수 3천여명)가 자생적으로 모여면서 소셜벤처 집적지가 형성
- 정부는 2019년까지 소셜벤처 분야에서 2,5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며, 성수동 소셜벤처 벨리를 수도권 청년 소셜벤처 HUB로 육성하기로 함

2. 다양성과 포용성의 확산

■ Station F는 연령, 성별, 학력, 출신국가를 구분하지 않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추구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창의적 문화의 확산을 유도

- 창의적 문화의 확산은 창업지원 시설의 집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는 지렛대로 기능

* 창의적 문화의 확산은 기술 개발 및 창업 지원 환경을 활용하여 보다 쉽게 창업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의 발휘를 촉진

3. 규모의 효과

- 밀집이 강화될수록 관련 기관들과 전문화된 공급자와 수요자가 유입되어 고정 비용이 감소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됨으로써 새로운 기업의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유발

- Glaeser, Kerr and Ponzetto (2010)는 이론 모형을 통해 기업가적 사람들이 특정 공간에 집중될수록 기업가 정신이 고취됨을 입증

- 창업거점으로서 실리콘밸리의 경쟁력도 다수의 기업이 밀집되면서 도전과 실패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었기 때문⁷⁾

- “이곳에 있는 인재풀은 실패하더라도 그 후에 합류할 수 있는 다른 스타트업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려 한다”(수퍼 카본(Super Carbon) 창업자 브래들리 몸버그(Bradley Momberg))

- “수천 개의 회사들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고 재능이 있다면 다른 일자리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실패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망이다.” (에버로(EverLaw) 창업자 아젯 샨카(Ajeet Shankar))

- Station F는 이 같은 실리콘밸리의 밀집 효과를 압축적으로 도시 내에 구현한 것이며, 창업 기업의 밀집을 도시 재생과 연계함으로써 프랑스적인 모델을 추구

- World’s Biggest Startup Campus를 내세우며 창업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프랑스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Station F를 파리의 또 하나의 명소로 위치시킴

* Station F는 2017년 10월부터 7개월 동안 총 63,821명이 방문

* 스냅챗(Snapchat) 창업자 에반 스피겔(Evan Spiegel),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EO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영부인 브리짓트 마크롱(Brigitte Macron), 슈퍼모델 나탈리아 보디아노바(Natalia Vodianova)등 유명 인사들이 방문하면서 창업국가로서의 프랑스의 노력을 홍보

7) 실리콘밸리에 관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美 실리콘밸리형 혁신모델과 정책 시사점 연구」, 2018. 09.”을 참조.

5. 정책 시사점

- 규모와 다양성 및 포용성, 지역 재생으로 요약되는 Station F의 창업공간 재해석의 장점은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Station F와 같이 규모와 다양성, 포용성을 추구하면서 복합적 지역 재생 효과까지 누리고 있는 창업공간은 현재 부재한 편
 - * 성수동 소셜벤처밸리의 경우 복합적 지역 재생 효과를 누리고 있고, 소셜벤처가 밀집함으로써 일부 포용성을 창출하고 있지만,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Station F와 비교하기 힘들
 - * 판교 창업존은 기술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공용 인프라와 전문 기술 지원 등 창업기업을 위한 원스톱 창업지원 클러스터를 조성하며 창업단지로서 규모를 실현하고 있으나, 지역 재생의 의도로 조성된 공간은 아님
- 전국 주요 지역에 5 ~ 6개의 커뮤니티 조성형 창업공간을 구축하고, 기존 창업 인프라를 이곳으로 집약화하는 방안 모색
 - 지역의 대표 창업공간으로서 인식을 제고시키고, 창업공간이 지역발전과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육성
 - 창업공간을 다양성과 포용성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기술 혁신과 문화혁신으로 지역 재생을 자극하는 방안 모색
 - 전국 262개에 이르는 창업보육센터 및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43개 창업선도대학 등 기존 창업인프라도 새로운 창업공간과 연계하여 혁신하는 방안 모색
- 낙후 지역 도시 재생 및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신개념의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
 - 예를 들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철도역 부지 등을 커뮤니티형 창업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
 - * 옛 철도부지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Station F의 사례와 유사

- 신개념의 커뮤니티 조성형 창업공간 인근에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휴 노동력의 재창업,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시설을 추가
 - 커뮤니티형 창업공간을 신산업 인력과 기술 양성의 창업 클러스터로 확장
 - *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기술 적용에 따라 자동차산업 등 기존 제조업에서 대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적 실업을 흡수

참고자료

Chatterji, Aaron, Edward Glaeser, and William Kerr. "Clusters of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Innovation Policy and the Economy* 14.1 (2014): 129-166.

Delgado, Mercedes, Michael E. Porter, and Scott Stern. "Clusters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10.4 (2010): 495-518.

Frenken, Koen, Frank Van Oort, and Thijs Verburg. "Related variety, unrelated variety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Regional studies* 41.5 (2007): 685-697.

Glaeser, Edward L., William R. Kerr, and Giacomo AM Ponzetto. "Clusters of entrepreneurship." *Journal of urban economics* 67.1 (2010): 150-168.

Jacobs, J. (1969). *economy of cities*.

Porter, Michael E. "Location, compet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Local clusters in a global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4.1 (2000): 15-34.

Rocha, Hector O., and Rolf Sternberg. "Entrepreneurship: The role of clusters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empirical evidence from Germany."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005): 267-292.

Saxenian, A. (1996). *Regional advantage*. Harvard University Press.

대한상공회의소. 美 실리콘밸리형 혁신모델과 정책 시사점 연구. 2018.

이유리; 이명훈.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17, 29.2: 161-187.

최조순; 김태영; 김종수.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의 역할. *도시행정학보*, 2011, 24.1: 283-302.

네이버 캐스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8925&cid=59088&categoryId=59096>)

아시아경제 (<http://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0809102210361>)

Not what you'd expect: Data from 1 year at STATION F and 1,000 startups

(<https://www.slideshare.net/STATIONF/not-what-youd-expect-data-from-1-yea>)

r-at-station-f-and-1000startups)

Station F 홈페이지(<https://stationf.co>)

Station F HEC 프로그램 매니저 Antoine Lepretre와의 인터뷰(2018. 09. 12.)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김동열

편집인 : 전인우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bi.re.kr>

인쇄처 : 경성문화사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